

“AI시대, MSP·친환경 데이터센터 등 신사업 확장 가속화”

메트로가 만난 기업인

권인택 오픈놀 대표

커리어·채용서 교육·투자 등 확장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 지속 제공 인도·美·우즈벡 해외진출 기대감 AI 채용 혁신 서비스 ‘미니인턴’ 일경험 있는 실무인재 채용 최적

커리어·채용 전문기업이자 코스타다 상장사인 오픈놀은 클라우드 관리서비스 제공자(MSP), 친환경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중심으로 신사업 확장에 주가로 나선다.

권인택 오픈놀 대표는 8일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다보니 사람, 교육, 공간, 투자 등으로 사업 분야가 넓어졌다”면서 “최근엔 ‘클라우드 관리서비스 제공자’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인공지능(AI)시대에 기업들의 요구가 커지는 만큼 친환경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MSP란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부터 이전, 운영관리, 보안 등의 서



권인택 오픈놀 대표.

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관련 업계에서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있는 오픈놀은 해외시장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

권 대표는 “해외사업은 시니어, AI 등 기존 사업 영역에 비해 성장률이 더

다. 하지만 기대가 매우 크다. 인도, 미국, 우즈베키스탄이 현재 타깃 1순위 국가”라고 덧붙였다.

현재 오픈놀의 사업 영역은 청소년, 청년, 시니어 중장년, 해외 등 사실상 유아·소년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생애주기를 커버하고 있다.

서비스 영역도 디지털 교과서, 기업 가정신 교육, 대학생·유학생 대상 취업 교육 및 일자리 매칭, AI 일자리 매칭, 대기업 은퇴자 ERP 서비스, 외국인 채용 디지털 사이니지 확대 등을 넘나들고 있다.

간판 서비스인 미니인턴 외에도 온라인 이력관리 서비스 ‘오픈리오’, 오픈놀의 모든 교육 콘텐츠를 모아놓은 ‘M클래스’, 개인별 이력서를 분석해 맞춤형 취업스케줄을 알려주는 ‘오픈레너’(예정) 등도 차례로 선보이고 있다.

또 서울목동에 있는 서울청년창업사관학교, 구로에 있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 등 현재 17곳의 ‘공유 공간’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유치에 목마른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를 설립, 현재 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84년생인 권 대표는 2012년에 오픈

놀을 창업했다. 첫 해 매출은 300만원이었다.

“청소년 시절부터 과정 중심의 이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창업 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진로 교육을 무료로 했다. 그런데 한 학교에서 수고비로 300만원을 줬다. 그것이 창업 후 처음 들어온 돈이었다. 첫 매출인 셈이다. 당시 회사 직원은 10명이었다. (웃음)”

오픈놀 대표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서비스는 ‘미니인턴’이다.

권 대표는 “AI 기술 등을 접목한 미니인턴은 구직자를 스펙이 아닌 기업이 제시한 실무 과제에 대한 수행 능력으로 평가해 채용하는 인재 매칭 솔루션”이라며 “기업이 온라인으로 문제(프로젝트)를 내면 취준생이 2주간 이를 푸는 방식으로 사실상 미니 인턴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실무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니인턴은 타사의 ▲지인 추천 ▲직무경력 및 이력 ▲관계형 인재 매칭 등 과도 차별화된다는게 권 대표의 설명이다.

권 대표는 “대기업은 신입을 뽑아서

한해 6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연수를 시킨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처음부터 실무형 인재를 뽑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미니인턴은 이런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다. 또 실무에 최적화 돼 있다”고 덧붙였다.

직무경험을 증명하는 직무역량 평가 방식이 미니인턴의 특징이다. 연차가 아니라 프로젝트 수행 결과물을 중심으로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고 발전 가능성을 검증한다.

미니인턴에서 기업이 내는 프로젝트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로 구성돼 있다. 현재까지 5만개 정도가 쌓였다.

권 대표는 “참여 취준생이나 인재를 찾으려는 기업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미니인턴을 통한 채용률은 평균 17% 정도 나온다. 어떤 시기엔 20%를 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창업 첫 해(2012년) 3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던 오픈놀은 이후 빠르게 성장하며 2019년 33억원, 2020년 71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163억원, 2023년 251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에는 37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목표로 제

시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글로벌혁신특구 후보에 대구 등 3곳 선정

AI로봇·바이오제조·우주항공 신기술 실증 통해 경쟁력 강화

대구(AI로봇), 경남(우주항공), 대전(합성생물학)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공모 선정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들 후보지역은 분야별 실증특례 부여를 위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 후 ‘지역특구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

한 대의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해 4개 지역을 처음 선정했으며, 올해는 7개 시·도가 공모에 참여했다. 정책, 법률, 기술, 경제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특구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3곳을 내년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대구 is 완성도 높은 제품화 로봇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첨단제조 존과 AI 기술을 접목한 제품고도화 로봇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AI 혁신 존을 조성·연계한다. AI로봇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인간 생활지원 로봇 및 고인이도 비정형 제조작업 로봇의 실증을 추진한다.

대전은 합성생물학 산업 육성 및 생

태계 확산을 통해 첨단 바이오제조 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바이오 파운드리를 활용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규제 특례를 받아 바이오 소재 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경남은 지역의 우주산업 성장 동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세대 첨단 위성 개발 전주기 관리 표준절차 및 체계를 마련하고 위성 관계 인프라를 구축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첨단 신기술은 규제장벽에 부딪히거나 안전 기준 등 제도가 미비해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며 “AI 로봇, 우주항공, 바이오제조 분야 신기술 실증사업을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성공 스토리를 써나가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제61회 무역의 날’ 기념 행사에서 세라젼 이경수 대표(가운데)가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세라젼

세라젼 ‘무역의 날’ 산자부 장관상 등 2관왕

김봉환 제조운영실장 장관 표창 이인수 서비스본부장 무협회장 표창

세라젼이 ‘제61회 무역의 날’을 맞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포함해 2개의 표창을 수상했다.

8일 세라젼에 따르면 올해 김봉환 제조운영실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이인수 서비스본부장이 한국무역협회 회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품질·서비스를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승호 기자

세라젼은 창립 1년 후인 1999년에 미국 FDA에서 의료기기 승인과 함께 첫 해외 수출에 성공한 이후 중국, 인도, 유럽 등에 진출하며 적극적으로 해외 사업을 키워왔다. 현재 70여개국에 2500여개의 글로벌 체험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 안정적으로 해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내 생산 전략을 유지하는 등 제조·생산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마스터 V9 등 세라젼 척추의료기기는 국내를 비롯한 70여개국에 유통되는 제품이 국내에서 생산한다. /김승호 기자

청호나이스 3000만불 수출의 탑

청호나이스가 ‘3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8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2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엔 ‘3000만불 수출의 탑’을 받아 연간 매출액 50% 이상 성장을 이루며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1993년 설립한 청호나이스는 기술력 기반의 회사로 2003년 얼음정수기를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등 업계 기술력을 선도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중소업체, 소외계층 사랑나눔 바자회 개최

10~1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주방용품, 생활용품 등 판매

중소기업계가 바자회를 통해 나눔 활동을 이어간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한다. 이번 바자회는 지난 11월에 연 ‘2024 중소기업 나눔 페스타’의 연장 행사로 중소기업계의 후원물품을 지역주

민들에게 다시 한번 공개할 예정으로 판매 수익금은 연말연시 지역소외계층 지원사업으로 쓰인다.

사랑나눔 바자회는 중기중앙회 1층 로비 및 후문에서 진행하며 주방용품, 완구·문구, 화장품, 생활용품 등 우리 실생활에 유용한 제품들로 라인업을 구성해 지역주민들에게 소개하고, 판매수익금은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겨울용품 지원, 중소기업 자녀 장학금 지원, 군경부대 위문품 전달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롯데백화점 광복 직영점’ 오픈

코웨이 부산시 중구 롯데백화점 광복점 9층에 브랜드 체험과 판매 매장 ‘광복 직영점’을 열었다.

8일 코웨이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광복 직영점은 해운대점에 이은 부산 지역 두 번째 직영 매장이다.

코웨이 직영 매장 중 롯데백화점에 최초 입점했다. 신세계백화점 천안아산점과 마산점에 이은 세 번째 백화점 입

점 매장이다.

이번 광복 직영점 오픈으로 코웨이는 전국 18개 직영 매장을 운영하게 됐다.

부산 광복 직영점은 신제품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 S8+’를 비롯해 아이론 얼음정수기, 비렉스 페블케어 등 베스트셀러를 직접 체험해보고 구매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